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12월 1일(주일) 제1272호

2019-20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시작 12월 9일~1월 18일 오전 5시 20분 모든 캠퍼스

2019-20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12월 9일(월)부터 내년 1월 18일(토)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이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마지막 주간(2020년 1월 13~17일)에는 R.T. 캔달 목사(영국 웨스트민스터채플 담임목사 역임, <자기용서> 저자)가 설교한다. CGNTV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캠퍼스와 해외비전교회에 중계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특순도 풍성하다. 주향한, 주찬양, 주사랑, 주기쁨, 주임재, 위심, 괴이여, 장로합창단, 권사합창단, 포레버성가대, 대학청년부, 차세대, 사랑챔버, 온사랑합창단, 일본어예배, 뮤지컬찬양팀, 교역자, 부전,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양지, 안산 M센터가 특순을 할 예정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주일 예배에서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서 바쁜 연말연시를 기도로 보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성도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동희 장로(이수공동체)는 "해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인지 모른다"면서 "시국이 어려운 이때 크리스천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경숙 권사(가정사역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나와 자신의 허물을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 교회, 차세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전
능
자
의
그
늘
아
래
머
물
리
라

당회

일시: 2019년 12월 7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안건: 당회운영위원회 선출, 은퇴장로식, 2020년 예산안

제직회

일시: 2019년 12월 8일 2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모든 제직
안건: 2020년 예산안

공동의회

일시: 2019년 12월 8일 3부 예배 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안건: 2020년 예산안

2019 임직예배 ... 새 리더십 584명

명예권사 6명, 권사 214명, 안수집사 364명

온누리교회 새 리더십 584명이 세워졌다. 어제(11월 3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19 임직예배'를 드렸다. 권사 220명(명예권사 6명, 권사 214명), 안수집사 364명(남자 116명, 여자 248명)이 임직됐다.

2019 임직예배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임호열 장로 대표기도, CGNTV 세리핌 합창단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2부는 임직자 서약, 안수기도, 임직선포, 안용태 장로의 권면, 임직증서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궁진 권사(강서공동체), 신원권 집사(북누리공동체), 이춘자 집사(양재공동체)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리라'를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며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편 오는 7일(토)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장로장립예배를 드린다. 올해 장로장립 대상자는 38명(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순예배 유튜브 시청안내

본문: 요한계시록 19:1~10(12월 3일 본문)
주제: 준비(의)의 세마포를 입고 어린양의 신부로 준비하라)

영상 제목: <하나님과 Quiet Time>
이재훈 목사

내용: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나만 이 가지는 기도의 시간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요?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그들과 함께 울고, 구슬땀 흘리며...

온누리교회 구호팀, 일본 나가노 수해지역을 가다

사망 93명, 행방불명 3명, 제방붕괴 140곳, 가옥 8만 채 침수, 토사붕괴(산사태) 821건,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난민 2,368명, 농림수산 피해액 3,058억 엔(약 3조3천억 원). 이 모든 피해가 단 이틀 동안 발생했다. 지난 10월 12~13일 일본을 강타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핏줄이 간 상처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피해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재해라고 표현했다. 유례없는 수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온누리교회 구호팀(NGO 더멋진세상, 2000선교본부, 대학청년부, 일본어예배부, 일본비전교회 연합)이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그곳을 찾았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 구호팀이 사과농장을 뒤흔든 토사물을 걷어내고 있다.

기록적인 재난이 일어난 지 한 달 하고도 2주가 지났지만 그 상처와 아픔은 여전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은 그들의 아픔을 가슴 깊이 공감했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슬땀 흘렸다.

일본을 강타한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이틀 동안 많게는 1,001mm나 되는 비를 퍼부었다. 일 년 강수량의 30~40%에 달하는 양이다. 물 폭탄이 터졌다는 말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엄청난 양의 강수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나가노현에 있는 지쿠마강은 일본에서 가장 긴 강(367km)이다. 그 일대는 강 옆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농장이 드넓게 펼쳐진 그야말로

옥토 중의 옥토였다. 그런데 이 일대 제방이 70m나 붕괴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한 순간에 잃은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흘린 땀방울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자 '위로'

온누리교회 구호팀은 두 개 팀으로 나뉘어 복구 작업을 했다. A팀은 주택 내부 잔해 정리와 벽에 묻은 진흙을 닦아냈고, B팀은 사과농장으로 유입된 토사물을 삽과 곡괭이로 걷어냈다.

A팀이 처음 간 곳은 후지모토 씨(여, 80세) 집이었다. 동갑내기 남편과 노후를 편하게 보

내기 위해 새로 지은 집이다. 남편 생전에 함께 지은 집이라 소중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 바로 그 집이 망가졌다.

“이 집을 남편과 함께 지었어요. 추억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요. 혼자서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엄두조차 못내고 있었는데 한국인 봉사자들이 와서 진흙을 닦아주고, 복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후지모토 씨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들이었다. 집안에 가득 묻은 진흙을 닦아내는 일은 밀도 끝도 없는 고된 작업이다. 갈레로 아무리 닦아내도 진흙이 계속 묻어나오기 때문이다. 청년들도 하기 힘든 작업을 어찌 고령자들이 할 수 있겠는가.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주민들에게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B팀은 사과농장을 뒤엎은 토사물을 치웠다. 땅에 떨어진 사과를 한데 모으고, 사과나무 주변 2m 범위에 있는 토사물을 걷어냈다. 강에서 휩쓸려 온 토사물이 30~50cm 이상 쌓여 있었다. 농장은 드넓고, 사과나무는 수백 그루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우려면 엄청난 작업량이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는 이 작업을 반드시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빨리 토사물을 걷어내고, 과수원을 소독해야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도 온누리교회 구호팀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

군필자들의 삽질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일당백이었다.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힘차고 속도도 빨랐다. 일본인 봉사자들이 사과나무 한 그루 작업하고 쉴 때, 온누리교회 구호팀은 사과나무 두세 그루에서 흙을 퍼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는 것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농장주 시모카와 씨는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복구 작업하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게 사과밭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생업이니깐요. 이 넓은 사과밭을 어떻게 복구할지 정말 막막했는데 온누리교회 구호팀 덕분에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온누리교회 구호팀 덕분입니다.”

요시무라 씨 가족이 운영하는 사과농장도 피해가 극심했다. 요시무라 씨 가족들은 온누리교회 구호팀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 없다면 사과나무 제일 꼭대기에 달려서 비에 잠기지 않은 사과를 선물했다. 꿀처럼 달고, 향긋한 그 사과가 수해를 입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시무라 씨 가족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의 도움을 받아 복구 작업에 진전이 있고, 내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흘린 땀방울은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위로가 분명했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일본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 지역은 집도 농장도 침수돼서 엉망인데 그 와중에 불단(佛壇)을 찾았으며 기뻐하는 주민이 있을 정도로 불교 세력이 크고 강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찾아와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단순한 구호작업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의 회복과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주시요.”

온누리교회 구호팀 명단

이재석 선교사(두란노해외선교회), 박세혁 팀장(여호수아), 이상욱(여호수아), 유윤경(SNS), 김태청(SNS), 진민호(SNS), 김진술(요셉), 권수민(요셉), 서윤희(J4U), 황경민(Pole2), 정주섭(하늘), 신영한(하늘), 김홍진(일본어예배), 요시오카 리에(일본어예배), 조현아(일본어예배),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아치오 온누리교회), 하카마타 미키 목사(우에다 온누리교회), 윤선령 자매(우에다 온누리교회) 총 19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구호팀원 중에서 일본에 가지 말라고 만류 받은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노 사람들을 생각해서 와주셨고,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보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신사와 불교 세력이 유독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봉사 자체가 곧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여러분을 보고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이곳이 변화되고, 부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이곳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 히로타 노부유키 목사(나카노그리스도교회, 복신슈기독교회재해대책실 담당)

큰 위로와 은혜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두 팔 걷어 부치고 달려와 준 것에 감사했고, 쉬지 않고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 받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재난지역에서 봉사하는 온누리교회 구호팀 덕분에 선교와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선교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일본인들과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께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가노 시민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에 온누리교회 구호팀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누군가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을 지라도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자랑’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59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55번이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전문용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린도전후서에서 39번 나오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말로 ‘자랑’이라고 번역했지만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영광을 구하다’, ‘어떤 것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어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다’ 등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서 삶의 의욕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믿고 의지하여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며, 결국 신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14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 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십자가를 경건하고 고상한 하나의 장식이자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로 되돌아가 보면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하고 잔혹한 죄수들을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고, 예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11~18

“예수의 흔적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를 질문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왜 많은 액세서리 중에서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고 경건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충격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감히 십자가를 상징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카타콤에 가 보면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익투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단어를 함한 것입니다. 익투스를 상징하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은 물고기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보다 훨씬 뒤에 믿음의 상징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끔찍하고, 피하고 싶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틀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를 들고 행진을 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를 항상 착용하고 다닙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 중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난 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느낌이 없는 사도 바울은 당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나도 저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나도 저런 교육을 받았으면’, ‘나도 저런 사람이었으면’ 할 정도로 희망하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이력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이 완벽하고, 많은 학문을 체득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자랑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까? 첫째,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십자가

는 매우 거칠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종교적인 체계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흉악한 사형대에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는 것은 종교적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메시아는 능력이 많아야 하고, 영광스러워야 하고, 수많은 사람 위에 군림해야 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도 사람들에게 의해 못 박혀 죽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뱉는 말, 대중적인 신념은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만듭니다. 세상은 복음을 철학의 아류, 수많은 종교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종교로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철학의 일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한 종교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종교 철학에 근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한 인격체인 것처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위협과 시선과 세상이 주는 평가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못 박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

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갈 5:24).

예수님께서 못 박하신 십자가는 나와 세상을 다른 관계 속에 존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 받지 않고, 세상의 평가, 신념,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삶이 좌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세상의 관계를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진리를 평생 체험하고 믿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화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원리요, 중심이요, 체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세상을 못 박았고, 나를 못 박았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당시 아리마대 요셉 같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청교도 옥타비우스 윈슬로우이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자랑했습니다.

〈13편에 계속〉

기획 습관이 신앙을 키우고 삶을 바꾼다 1. 기도

기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성경 인물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참석해서 기도하는 습관 만들자!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했고, “습관의 씨앗이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말이다. 습관(習慣)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점이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좋은 습관을 가진 크리스천을 통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그 첫 번째는 기도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크리스천의 운명을 좌우하는 좋은 습관이 있다. 기도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A자매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A자매(S브릿지공동체)는 초신자인데다 일상이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른 넘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됐는데 아직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요. 남들 다하는 식사기도도 잘 안하거나 하더라도 정말 짧게 하고 끝내요. 집이나 직장에서도 따로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예배시간에 기도하는 정도예요. 그나마도 주일에배만 드리고 있어요. 새벽기도는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새벽기도를 습관화해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 인물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다음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는(렘 15:1)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삼상 12:23).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다윗 역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 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시 55:17).

다니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창문 앞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전



지난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에 하던 대로’ 즉, 습관대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랑하셨다.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채로 구해내셨다.

신약에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그 시간은 제9시(오후 3시)였다.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행 3:1).

이방인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행 10:1~3).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복을 내리셨다.

신약의 절반을 쓴 바울 사도 역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엡 6:18).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눅 22:39~40).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셨다.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다.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눅 3:4),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으며(막 1:35), 12제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철야기도를 하셨다(눅 6:12~13). 잡히시기 직전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와중에 서도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셨다.

크리스천의 제습관은 ‘기도’

어떻게 하면 성경 속 인물들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정

해보자.

B자매(25세, SNS공동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고된 일정이 예상되는데 잘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피곤할 때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운 채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스르르 잠들기도 하고요(웃음).”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 해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약속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운전하거나 여행할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멍 때리는 대신 기도를 해 보자.

무엇보다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우리의 모델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시편 기자도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 57:8).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시 119:147~148).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90% 이상이 습관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다. 크리스천의 제1습관은 기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습관화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때마침 12월 9일부터 ‘2019-20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변화의 시작, 새벽 5시

매일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들여보자!



김수민 권사
(칼럼니스트, (주)넥스콤홀딩스 대표, 동대문중랑공동체)

방송사 재직 시절, 지각을 잘 하는 후배한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도 모르냐고 핀잔을 줬더니 “선배님, 요즘은 바뀌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해요. 그리고 잡아먹혀요”라고 해서 한바탕 웃

은 적이 있었다.

습관을 만드는 66일

미국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꼽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죽어라. 이른 아침은 황금을 입에 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한 집의 15번째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형편이 어려워 열 살 때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공장 직공으로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시의회 의원, 펜실베이니아 식민지의회 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1755년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토머스 제퍼슨 등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였고, 미국과 프랑스의 동맹관계를 이끌어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를 창설하고 미국철학협회를 창립한 교육자이자 사회사업가였다.

최근 정말 나를 바꿔봐야겠다고 동기부여를 해준 책이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 로빈 샤르마의 최신작 <변화의 시작, 5AM 클럽>이다.

이 책에는 한 억만장자가 티셔츠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명언을 앞뒤로 새긴 채 등장한다. 작가는 마인드셋(심리적), 하트셋(감정적), 헬스셋(신체적), 소울셋(영적)이 컨트롤되어야 잠재력이 커진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 네 가지가 쌓이면 일과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삶이 바뀐다. 저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0분씩 등분해 쓰는 습관을 적어도 66일 동안 하면 이 습관이 몸에 밴다고 한다.

헬스셋, 소울셋, 마인드셋 컨트롤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셋팅은 헬스셋(Health-set)이다. 운동을 말한다. 최상의 건강과 체력을 유지해야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대한 업적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20분은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하는 게 좋는데, 이때 행복을 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두 번째 20분은 소울셋(Soul-set) 시간이다. 기도와 묵상일기를 쓰면서 적용과 함께 오늘 꼭 해야 할 중요한 일 다섯 가지를 적어보는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들여보자.

뚝을 올리고 항구를 떠나 멋진 항해를 해보자.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것이다. 마음의 평화와 지혜가 생긴다. 이는 하트셋(Heart-set)으로 이어진다. 크리스천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면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트셋은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 상처와 좌절감이 회복되는 시간, 매일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해나가고 미래의 비전을 품는 시간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며 자신을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이다.

마지막 20분은 자기계발을 위해 지식을 습득하는 마인드셋(Mind-set)이다. 어학이나 역사서, 인문학 강의를 접하는 게 유익하다. 운전은 하면서 오디오북을 듣거나 양질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배우는 시간으로 할애한다. 우리의 기억력은 50대를 기점으로 쇠퇴하지만 계속되는 배움은 75세까지 인지능력을 성장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꾸준히 실천해서 습관화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게 된다. 서로를 성장시켜 줄 사람들과의 만남이 증가하고, 수입도 늘고,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경험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시간 활용도 중요한데, 7시쯤 저녁식사를 하고 디지털기기(휴대폰, TV)를 끈 다음 밤 9시까지의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드라마 중독도 습관이다. 가족끼리 식탁을 대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도 쉽지 않은 요즘, 어른이나 아이 모두 휴대폰에 중독되어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각자 SNS에 몰두하고 있다. 음식점에서도 그렇다. 어른들끼리 편하게 밥을 먹으려고 아이를 보조의자에 앉힌 채 만화영

화를 휴대폰으로 틀어주면 아이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게 하는 습관을 형성시킨다. 영유아 시절부터 포노사피엔스(휴대폰없이 살아갈 수 없는 종족)로 키워지는 것이다. 전철을 타 보면 백이면 백, 모두 아이폰을 귀에 꽂고 모바일 세상에 몰두해 있다. 운전할 때도 휴대폰과 잠시도 이별할 수 없어 음주운전이나 졸음 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기도 한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간단한 감사일기를 쓰고, 10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7~8시간 충분한 숙면 중에 뇌세포의 뉴런이 60%로 수축되면서 뇌척수액이 스며들어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낸다. 나아말로 새벽까지 잠 안 자고 글을 쓰는 습관이 있는데 이 소중한 생명 재생의 시간을 스스로 파괴해 왔던 것이다.

조기은퇴해서 종일 TV만 본다든지 새벽부터 등산복 차림으로 나와 정처 없이 전철을 타고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들, 취업과 결혼 등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좌절감으로 불규칙한 삶을 사는 청년들, 치열한 대학입시 준비로 밤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수험생들, 날마다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밤에는 술자리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푸는 직장인들, 종일 자녀양육과 살림에 지친 주부들도 더 나은 2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5AM 클럽으로의 입성

새벽 5시 새벽기도를 가는 크리스천들도 많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매일 새벽 5시에 일

어나 운동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 22일 동안은 고문 같겠지만 그 다음 22일 동안 정착이 되고, 또 그 다음 22일은 자동화 습관이 붙는다고 한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인은 “지금부터 20년 후 당신은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작가로서 당대 큰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아내와 두 딸이 죽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즐거운 풍자소설을 써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었던 내공의 원천에 대해 “스스로 만든 습관과 규칙을 지켜낸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AM 클럽으로의 입성은 나태함, 증오, 분노의 의식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평안함, 사랑으로 무장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시켜줄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국내 병원에도 이미 IBM의 의료진료 로봇 왓슨이 의사처럼 일하고 있고, 마카오의 카지노에는 로봇 딜러가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다. 일본의 호텔에는 룸서비스를 하는 로봇이 등장했고, 소프트뱅크에는 패퍼라는 로봇이 방문객들을 안내한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이어폰 픽셀버드는 귀에 꽂기만 해도 약 40개국 언어로 상대방의 말을 통역을 해준다. 구글 포토는 휴대폰에 있는 모든 사진을 최근 날짜순으로 자동 정렬해주는데, 특정인의 얼굴을 터치하면 깨알 같은 얼굴들 속에서도 찾아낸다. 검색어에 ‘제주도’라고 치면 제주도에서 찍은 모든 사진을 불러오기도 한다.

혹자는 인공지능이 수동적으로 입력된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변호사 업무를 하는 세상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순간인 ‘싱귤러리티(Singularity)’가 임박해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이나 과학의 발달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구글의 인공지능책임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하루에 영양제를 100알씩 먹는다고 한다. 장기이식, 인공피부, 나노기술, 유전자 편집으로 인간은 안티에이징을 넘어 육체적 영생을 꿈꾸는데, 그 영생을 얻는 시점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와 같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가 곳곳에 있다.

결심은 새해 첫날만 하는 게 아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은 존재 이유에 어긋난다는 말이 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습관을 들여보자. 뚝을 올리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 멋진 항해를 한번 해보자.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가장 따뜻한 예수님의 허그(Hug)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허그 콘서트’
전도대상자 114명, 결신 41명, 긍정반응 28명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허그(Hug)콘서트’가 지난 11월 26일(화)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막 올랐다.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동료 및 선배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정말 뜻 깊은 자리였다.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허그콘서트에는 전도대상자 114명이 참석했다. 41명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28명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현장에 다녀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허그(Hug) 콘서트 참석자들이 손을 모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스포츠만큼 박진감 넘치는 게 또 있을까.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경쟁하던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어김없이 동료 선수들과 상대팀 선수들을 안아준다.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때는 패한 상대팀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뜨겁게 허그를 한다. 스포츠인들에게 허그는 그만큼 특별하다. 지난 11월 26일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열린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Hug 콘서트는 선수들이 경기 후에 나누는 허그보다 더 뜨겁고 특별했다. 늘 함께해준 동료와 선배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Hug 콘서트’는 장장 4개월 동안이나 준비했다. 스포츠 분야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집회를 준비했다. 그 노력 덕분에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Hug 콘서트에는 축구, 야구, 양궁, 탁구, 스키, 핸드볼, 유도, 역도, 태권도, 필드하키, 장대높이뛰기, 미식축구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전도대상자 114명이 참석했다.

30년 만에 다시 뭉친 핸드볼팀,
아들의 친구를 초대한 어머니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핸드볼 금메달 신

화를 쓴 김명순 선수는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허그콘서트 덕분에 30년 만에 동료들과 다시 뭉쳤다. 김명순 선수는 동료선수였던 다섯 명을 이번 집회에 초청했다. 10대 시절부터 실업팀을 거쳐 국가대표 시절까지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 보석 같은 동료들이 이번 기회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몇 십 년 전에 제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 뒤로 동료들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에 함께 가자고 초청했어요. 이번 기회에는 꼭 동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주영 성도는 아들 명성준 형제(부천FC 축구선수)의 친구인 야구선수 광빈 형제(두산베어스)와 김윤수 형제(삼성라이온즈)를 초대했다.

“아들 친구들이 좋은 실력만큼이나 스포츠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맞춤형전도집회에 초대했어요.”

함께, 끝까지 믿음생활 이어가자!

스포츠인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Hug 콘서트는 게스트도 풍성했다. 방송인 김원희가 사회

를 보고, 가수 효린과 남성4중창 CRUX가 특순을 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집사는 간증을 했다.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 효린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허그는 예수님의 허그였다”고 고백했다. 이영표 집사의 간증은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2013년 이후 발생한 공항 장애로 큰 어려움을 겪다가 회복하고 있는 야구선수 홍상삼 선수(두산베어스)를 위해 다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스포츠인들에게 “성공을 많이 했던 실패를 많이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뜻 깊은 자리에 초청해준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믿어질 것”이라고 권면했다.

남동유 씨는 “누군가 종교를 권유하면 반박하곤 했는데 오늘 집회는 달랐다”면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고백했다. 전 핸드볼 국가대표 김명순 선수의 초대로 참석한 강인순 씨는 “이렇게 좋은 집회에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함께 끝까지 믿음생활을 이어가자”고 약속했다. 야구선수 출신 한성훈 형제(전 한화이글스)는 “앞으로도 온누리교회에서 스포츠인들이 모여서 삶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간증



이영표 집사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이기적이었다.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다. 연약한 인간이 종교를 가지는 건 괜찮다고 여겼지만 깊게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말싸움을 했고, 그 말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믿지 않으면 그만이

었지만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이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종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전지훈련을 가서 “하나님 제 눈앞에 나타나 주시거나 이 컵을 움직여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거나 컵이 움직이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3일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빠르거나 느려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관리 기록장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내가 나에게 묻는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나는 누구를 믿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나를 믿는다고 대답하

곤 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은 엉터리다. 만약 우리가 삶의 주인이고, 인생을 디자인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적, 성별, 시기, 부모, 성격, 키, 얼굴 등을 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등 큰 의미 없는 것을 결정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은 도박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배팅 한다면 이기면 무의식, 지면 지옥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배팅을 한다면 이기면 천국, 지면 무의식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삶을 걸면 저도 본전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다. 내가 그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오늘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운동선수들은 무의식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적으로 인식한다. 경기장에서 부딪히는 낯선 사람들이 적이기 때문이다.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반대로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절대적이다. 존경하는 코치의 말은 아닌 것도 옳다. 스포츠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가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떠나는 목회자의 인사 3. 김정순 목사

“나만큼 행복한 목회자는 없을 거예요”

차세대에서 시작해 차세대에서 은퇴하는 김정순 목사

김정순 목사가 올해 12월부로 정년퇴직을 한다. 김 목사는 1998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영아부 전도사로 부임해서 21년 동안 차세대만 섬겼다. 온누리교회 최초로 차세대에서 교역자 생활을 시작해서 차세대에서 은퇴(정년퇴직)하는 보석보다 귀한 이력을 남기게 됐다. 김정순 목사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나만큼 행복한 목회자가 없을 것”이라면서 “부족한 게 정말 많은 목회자를 곁에서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동료 목회자들 덕분”이라고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전했다. 다음은 김정순 목사와의 일문일답.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니다. 제가 처음 맡은 부서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영아부입니다. 자그마한 공간에서 영아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인원이 점점 늘면서 영아3부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21년 동안 차세대만 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36개월 미만 영유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1999년에는 상담대학원에 입학해서 대상관계이론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저의 졸업논문을 보신 강부호 목사님의 추천으로 전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양재 온누리교회 영아부를 세팅하고, 2007년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돌아와서 차세대 예뼌영역을 총괄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마땅한 교제가 없어서 교수, 교사들과 함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위한 교재와 만들었습니다. 한인숙, 김윤미, 이향순, 박길라,

표옥순, 이은정 권교회, 박민정, 고진규, 진명선, 장영미, 홍선아, 김지연, 이은연, 정소은, 이승애, 고은님 등 십여 명의 유아교육 교수,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자비량으로 10년 가까이 헌신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연 예뼌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 교회에 가정과 함께 하는 예뼌 교재와 다양한 주중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부천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담당했습니다. 차세대 예뼌부터 파워웨이브 영역까지 폭넓게 섬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차세대 주 중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드림씨드, 꿈아일랜드, 사이닝 키즈, 예뼌 뮤지컬, 예뼌학교, 예뼌 부모교육, 헬로맘, 가스펠프로젝트, 하브루타, 파워워십, 부천비전성경통독, 마더와이즈(와이즈 마더링), 와이즈 파더링, 와이즈 패밀리 등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차세대 사역 외에는 두란노에서 열린 사모대학, 사모 JDS 등 사모들을 위한 전문 과정을 개설해

서 섬겼습니다. 주로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곤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한 선생님들과 동료 목회자들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때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게 됐고, 공부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과 동료 목회자, 교회리더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 역할 밖에 한 게 없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섬길 때 5개 부서가 청주 명성교회로 2박3일 캠프를 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사들과 교사 자녀들 100여 명이 함께 가서 사이닝글로리, 교사세미나, 저녁집회, 차세대 캠프 등을 했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공터에서 영화 ‘패션오브크라이스트’를 틀어놓고 뜨겁게 기도도 했습니다. 20미터짜리 빨간 천을 메고 예수님이 지나온 핏 길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맞춤형도집회가 공동체에서 부분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서빙고 영아부선생님들과 함께 총복음성에 있는 중공염회사에 가서 서빙고 본당에서 한 맞춤형도집회를 그대로 재연해서 좋은 열매를 본 것도 기억에 납니다.”

차세대들과 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일단 부모님들께 ‘자녀교육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잘 아시면서 실천은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입맛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AI)이 인간보다 훨씬 많이 알고, 훨씬 정확한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내다 보시며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과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하면 사람은 질 수밖에 없다. 사람은 말과 경주를 할 게 아니라 말 위에 타야 한다. 앞으로는 지성보다는 인성과 영성의 시대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부르타 방식의 가정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 창의성과 영성이 훨씬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차세대들에게는 ‘후츠과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후츠과는 ‘담대함’, ‘저돌적’이라는 뜻입니다. 토론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성장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취업보다 창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부르타, 코칭, 후츠과를 강조한 부천 차세대들은 성경 몇 장을 가지고도 백 개 이상의 질문을 하고, 성경 뒷이야기를 써갈 만큼 창의적인 영성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후르과 정신으로 살아가라!’”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제목이 무엇입니까?

“차세대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차세대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아주 드문 일일 것입니다. 차세대를 오랫동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배려로 제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한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과 예배드릴 때 가장 신납니다. 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동안 사역이 바빠서 근 10년 동안 박사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 대한 제언’ 논문을 쓰고 있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학업이 끝나면 부모교육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데 평생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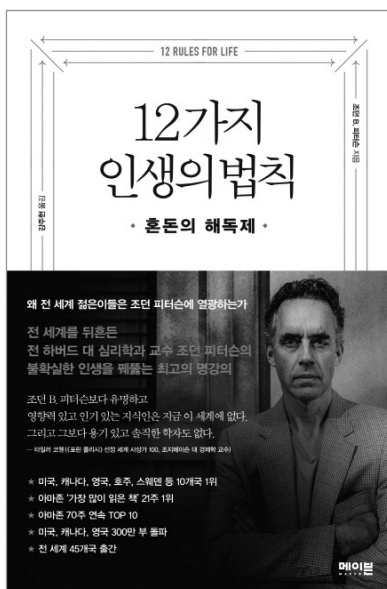
온누리교회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다가 작은 교회 중등부를 섬겼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모두 내려놓고 평신도 신분으로 온누리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순장, 일대일 제자양육,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등 평신도 사역자로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자녀부 팀장으로 섬길 때 참석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는지 당시 차세대를 섬기던 이재훈 목사님께서 차세대 코치로 섬겨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차세대 영아부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인지 처음에는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잠시 뒤에 통과했다고 다시 전화가 왔었습



책 읽어주는 목사

혼돈의 해독제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저 | 메이븐 | 16,000원

포스트모더니즘시대는 선교의 암흑기 아니다. 온전한 선교로 나아가는 선교의 회복기다.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선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선교가 어렵긴 하다. 하지만 선교를 쉽게 하려고 했던 우리의 경향을 반성해야 한다. 예전에 “교회 가지”라고 하면 큰 노력

을 기울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시절의 향수에 젖어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당연히 선교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므로 변화한 시대상에 맞는 선교 전략을 기획해서 추진한다면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시대를 선교의 부흥기로 뒤바꿀 수 있다.

그 청사진을 제시한 책이 바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다. 책 제목 어디에서도 직접적인 기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없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부터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를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라’까지 실천 지향적이라는 느낌을 주지 성경적인 위앙스를 전혀 풍기지 않는다. 저자의 소개에도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라는 권위와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강사’라는 호감을 강조하지 신학을 공부했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제목을 다시 붙여보라고 한다면 〈절대 진리인 성경에 나타난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어울린다.

저자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수많은 고민의 맹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깨달음을 주는데 그 관점은 성경에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 세상에서 회자되는 다양한 지혜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독자들은 12가지 법칙을 읽으면서 단순히 구체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다가 저자의 인생 성찰과 해박한 인문학 지식에 우선 압도되고,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저자가 해석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성경의 권위에 다시 한번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국 이 책의 부제인 ‘혼돈의 해독제’는 성경이라는 말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이 책의 저자가 대놓고 성경을 인용하거나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답을 진리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다는 점이다.

바울이 떠올랐다. 바울은 로마의 지배권이 매우 강했던 환경에서 선교했다. 하지만 바울은 탁월한 변증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그로 인해 지식인들과 위정자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바울을 만나 대화를 나눈 자들은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인이 구원을 받고, 가정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주변에 복음을 알리기까지 했다.

저자는 바울처럼 글과 말로 ‘성경은 여러 지혜 중 하나’라고 여기는 자들의 폐부를 찌른다.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지역 주민들이 명명한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진 것처럼, 저자는 아직 ‘지고(至高)의 신’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찾지만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지고의 신

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풍성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고 있다. 우리도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자의 자리와 분야에서 접촉점을 찾아 설득력 있게 전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영성’의 실체가 하나님이고,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며, ‘이성의 한계’가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시작점이고, 의술로 설명되지 않은 현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존재이다. 예전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었지만 무의미하게 축적되어 있다. 그 지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연구하고 설명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선교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핵심자원이 될 수 있다.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인 온누리교회 성도가 가져야 할 Acts 29 비전이며, 방향이다.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전도를 왜 해야 하나요?”

답: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를 부르시고 양육하신 목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구원입니다.”

사랑, 믿음, 소망, 긍휼, 섬김 등은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이것들과 함께 빼놓지 않고 듣는 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전도다. 그리스도인은 왜 전도를 해야 할까?

첫째, 전도(영혼 구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일이 있다. 이 소문이 퍼져 동네 모든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치료해주시고 다음 날 새벽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을 전했다. 아마 예수님

이 전날 베풀어주신 기적과 은혜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 1:38).

또한 예수님은 여러교회에서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셨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 우리 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 기다린다. 예수님이 구원을 기다리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내려오라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못마땅해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이처럼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은 “영혼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구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구원을 위해 부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마 9:37-38). 예수님은 지금도 추수(영혼구원)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세상에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일꾼이 되어 전도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넷째, 우리를 양육하신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 교육을 받고, 여러 집회에 참석한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훈련시킨 다음 아웃리치를 보내셨다. 그때 제자들에게 영혼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마 10:5-7).

우리가 양육 받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과 죽어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다.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양육하신 목적이다. 지금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구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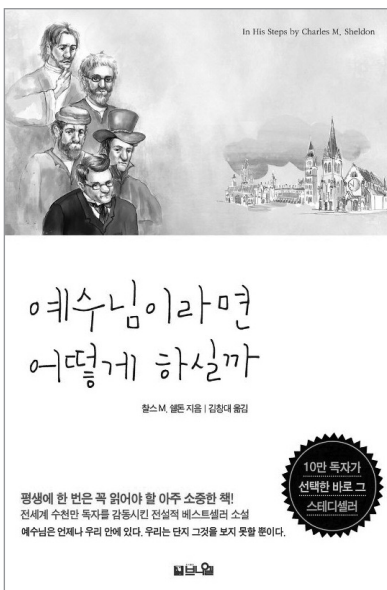
장경문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크리스천 생활지침서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 질문 속에 어떤 변화와 영향력이 숨어있는지를 아주 잘 소개하는 책이 있다. 찰스 M. 쉘돈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M. 쉘돈 저 | 브니엘 | 10,000원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손가락질 당하

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일까? 찰스 M. 쉘돈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그 해답이 있다. 이 책은 꽤 오래된 책이다. 19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으로 꼽힌다. 초판이 출간(1896년)된 이후 전 세계 21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 찰스 M. 쉘돈은 목사이자 작가다. 미국 뉴욕 주 웰스빌에서 태어나 브라운대학과 안도버신학교를 졸업하고 회중교회 목사가 되었다. 평소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찰스 M. 쉘돈은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그때 기독교인들의 냉대와 무관심, 차별에 큰 충격을 받는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목격하고, 그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한다. 그 일을 계기로 기독교 소설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집필한다.

어느 주일 아침, 미국 레이먼드 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헨리 맥스웰 목사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소리를 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했고,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 전 실직한 인쇄공이라는 말과 함께 사흘 동안 거리를 헤매며 만났던 크리스천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단 한 사람도 위로나 동정의 말을 건넨 이가 없었고, 무관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레이먼드 제일교회 교인들이 설교 전에 불렀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라는 찬송의 의미를 물었다. 그는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일지리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매일매일 불행과 술 취함,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면서 ‘주를 따라갑니다’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얼마 후 그 낯선 남자는 숨을 거두고 만

다. 그 사건이 레이먼드 제일교회를 뒤흔들었다. 헨리 맥스웰 목사는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고민한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운동을 시작한다. 일 년 동안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지는 운동이었다.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문발행인, 대학총장, 철도 공장 감독관, 목회자, 성악가, 소설가, 부유한 자선사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신앙인들이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행동했다. 그들의 삶은 180도 변화 되었다. 그들이 속한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일상에서 던져야 하는 질문임이 틀림없다. 신앙과 믿음, 욕망과 유혹 속에서 갈등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올바른 답을 제시해주는 물음이 될 것이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와 신앙의 거목들

1. 하용조 목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꽤 많은 신앙의 거목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했다는 점이다. 하용조 목사도 그렇다. 하용조牧사는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다. 하 목사가 5살 되던 해 피난길에 올랐다. 피난 가는 하 목사 부모의 손에 들

린 책이 한 권 있었다. 성경이었다. 성경은 하 목사 가정의 가장 귀한 재산이었다. 하 목사 가족은 인전을 거쳐 전라남도 목포에 들어갔다. 어느 선교사 집 처마 밑에서 생활했는데 어머니는 보따리 장사를 했고,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배고프고 힘

든 외중에도 하 목사의 아버지는 매일 5시간씩 기도했다. 어머니는 라면과 사탕을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귀신을 쫓고, 기도하며, 전도를 했다.

하용조 목사 신앙의 밑거름은 ‘부모의 신앙’과 ‘가정예배’였다. 하 목사 가정은 아침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렸다.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하 목사가 생전에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가정예배가 지금의 나를 만든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고

백하기도 했다. 그의 책 <감사의 저녁>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했다.

“가정에서 꼭 제단을 쌓으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매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가이드

제목 :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본문 : 눅 2:14-16, 20

♫ 찬양 - 더 원합니다.

메시지

들판을 지키는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 빛이 너무 환해서 목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고 떠나자 목자들은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서둘러 행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은 서둘러 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야가 드디어 오셨다!” 목자들이 서둘러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벅찬 가슴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목자들은 현장에 도착해 예수님을 뵈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관한 말을 전합니

다.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당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들판에서 잠을 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아주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 되었고, 사회적으로 대접 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목자들이 예수님께 서둘러 나아간 것처럼 벅찬 가슴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목격한 목자들은 어떻게 행하였나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들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 찬양 -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온누리 사랑챔버 ‘희망콘서트’



사랑챔버 ‘희망콘서트’.

12월 18일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온누리 사랑챔버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18일(수) 저녁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막 오른다.

이번 희망콘서트는 사랑챔버 단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다.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국내 최고 성악가들이 참가한다. 지휘는 손인경 집사(사랑챔버)와 박상현(모스틀리 필하모닉)이 하고, 소

프라노 오은경, 테너 하만택, 바리톤 양태중은 협연을 선보인다.

콘서트 입장권 판매금액은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는 할인된 가격(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으로 입장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12월 8일과 15일 주일 1~4부 예배 이후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10-8725-610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우리는 하나 콘서트”

온누리장로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 개최

지난 11월 23일(토) 서울역 동자아트홀(용산구 한강대로 372 서울 KDB생명타워)에서 ‘2019 온누리장로합창단(이하 장로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우리는 하나 콘서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온누리교회가 섬기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과 남대문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자리였다. 관객 200여 명이 명이 참석했다. 도곡챔버(도곡1부예배 챔버팀), CGNTV 세라핌합창단, 산마루교회 해맞이성가대, 새빛여성중창단, 아바드 크로마하프합주단도 함께 공연했다.

박성희 성도(산마루교회 해맞이

성가대)는 “장로합창단 제7회 정기연주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축복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 김영옥 권사(해맞이성가대 지휘자)는 “자교회, 타교회를 가리지 않고 섬기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께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는 “모두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장로합창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정병균 장로(장로합창단장)는 “장로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작은 밑거름이 되어 한국 사회가 복음으로 정화되고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일산공동체 맞춤형도집회 ‘해피투게더’

오늘(1일) 오후 4시 ‘M5 방송센터’

일산공동체가 ‘2019 겨울콘서트 해피투게더’를 주제로 맞춤형도집회를 개최한다. 오늘(1일) 오후 4시 ‘M5 방송센터’ (파주출판단지 메가박스 1층)에서 진행된다. 일산공동체 맞춤형도집회 해피투게더에는 요청자 30여 명, 전도대상자 70여 명, 공동체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수 V.O.S 박지현, 김희석 교수(크로스오버 테너)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편 일산공동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하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문의: 010-8719-2122

/ 홍하영 기자

창조신앙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창조신앙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12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트리니티 강의동 302호에서 진행된다. 설교와 우연-지적설계, 정보이론, 공통의 신비, 성경과 과학, 세포 속에 시그니처-생명의 설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오늘(1일)까지 등록하면 3만 원). 문의: 010-8906-4940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0년 2월 5일(수)에서 8일(토)까지 3박4일 동안 더쇼어호텔제주에서 진행된다.

참가접수는 전화접수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회비는 커플 당 66만 원(항공료 별도).

문의: 02-2182-9114

“이 땅을 더 멋진세상으로”

NGO 더멋진세상 창립 9주년 감사예배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27일(수)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창립 9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 후원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NGO 더멋진세상 장학생 자노라 형제(미안마, 전주비전대)가 간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단순한 봉사보다는 믿음의 집을 세

우는 헌신을 통해 이 땅을 더 멋진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NGO 더멋진세상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자노라 형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를 만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이 사랑과 은혜를 미안마에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세상 변화시키는 리더 될 때까지”

군포하나로 창립 17주년 감사예배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이하 군포하나로)가 지난 11월 29일(금) 창립 1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온누리복지재단 정호욱 상임이사, 김관수 목사, 송영범 장로, 양재수 장로, 봉사자와 청소년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군포하나로 창립 17주년 감사예배는 양재수 장로의 기도, 김관수 목사의 설교, 정호욱 상임이사의 축사, 우수봉사자 및 직원 표창, 입퇴소 청소년들의 수기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호욱 상임이사는 “청소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때까지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준서 학생은 “늘 한결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2002년 창립한 군포하나로는 하나로꿈학교, 꿈의집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운영하면서 90여 명의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다.

/ 김영선 기자

‘일본선교 활성화 위한 일본인 회심 연구’

융합선교 일본팀, 세미나 개최 66명 참석

2000선교 융합선교 일본팀이 지난 28일(목) ‘일본선교 활성화를 위한 일본인의 회심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지역 일본인교회 목회자, 선교분과위원회, 융합선교팀, 2000선교위원회, 일본어예배, 두란노해외선교회 등 일본선교 관계자 66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금은 일본에 복음전도가 활발

하게 일어나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세미나가 일본 복음전도에 기록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한 조을희 선교사는 “일본인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문화와 관계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8286	박미연	부천 회락	1138303	박찬미	성동광진	1138320	정세영	여호수아	1138344	이재선	강남D
1138287	송병욱	인천 서누리	1138304	김성은	S브릿지	1138321	김정환	여호수아	1138345	이병철	부천 믿음
1138288	김정영	남양주A	1138305	강미나	J4U	1138322	한유정	여호수아	1138347	전소리	J4U
1138289	김유리	하늘	1138306	신해옥	관악금천	1138323	양상민	여호수아	1138348	석문영	강남B
1138290	최유진	SNS	1138307	손동현	Bridge33+	1138324	박성진	여호수아	1138349	김선영	서대문
1138291	최고운	SNS	1138308	신동희	관악금천	1138325	이현지	여호수아	1138350	심성찬	태안기도처
1138292	김은혜	SNS	1138309	이소림	여호수아	1138326	정일영	교양은평	1138351	정문수	관악금천
1138293	조수영	SNS	1138310	김정훈	강남B	1138327	김미나	수원 서누리	1138356	최진우	일본어예배
1138294	김고운	SNS	1138311	박세라	여호수아	1138328	장승욱	Bridge33+	1138357	강건한	일본어예배
1138295	손영준	SNS	1138312	강성찬	여호수아	1138329	김예림	하브	1138358	이동철	일본어예배
1138296	김명진	SNS	1138313	구희연	여호수아	1138330	강경실	송파B	1138359	최은영	송파A
1138297	이명중	북누리	1138314	김선영	여호수아	1138338	안예은	CH630	1138360	유창곤	S브릿지
1138298	이찬우	갈렐	1138315	맹소은	여호수아	1138339	우지혜	CH630	1138361	배건희	인천Web
1138299	조성범	갈렐	1138316	김지웅	여호수아	1138340	장성민	CH630	1138362	김승연	대전 동누리
1138300	김가은	SNS	1138317	이재은	여호수아	1138341	장성훈	CH630	1138367	김소영	한강
1138301	김은주	SNS	1138318	박예진	여호수아	1138342	김성민	CH630			
1138302	김호정	SNS	1138319	서정아	여호수아	1138343	소재욱	S브릿지			

2019 대림절을 맞이하며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한 우리의 참회와 다짐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가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Advent)입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소망하여야 할 이 때가, 도리어 복음의 길을 곁게 만든 교회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고백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교회와 신앙의 세속화와 이로 인한 신앙인의 낮은 윤리의식의 현장들, 신앙보다 세속적 가치와 이념에 따라 흔들리는 교회와 신앙인들의 모습과 목회자 대물림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에 이르는, 교회와 신앙의 가장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때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4회 총회에서 발표한 ‘명성교회 목회대물림에 관한 화해 수습안’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의된 수습안이 총대들 나름대로의 한국 교회에 대한 충정에서 우러난 결정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결정이 과연 목회자 대물림 금지의 법을 헌법으로 제정한 정신에 합당한지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 우리는 과오에 머무르지 않고, 복된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작은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대립과 갈등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림을 이루어 가는 생명과 화평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어느 누구도 리더십을 독점하지 않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로교 정치의 기본 정신을 살려 목회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1. 신앙인의 윤리의식 약화에 대한 참회와 교회의 공교회성 강화를 위한 참여:

- 1) 농어촌과 도시 미자립교회 결연 및 지원
- 2) 건강한 목회를 위한 모델 제시 및 이단·사이비·동성애·반기독교적 운동에 대하여 공동 대처를 위한 협력
- 3)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영성과 생활과 역량을 강화

2.교회의 힘을 나눔함에 대한 참회와 교회의 이웃 사랑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참여:

- 1)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복음으로 감당
- 2) 성장지향적 목회에서 돌이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지향하며, 불출석(가나안)교인에 대한 연구 및 선교적 교회 모델을 개발
- 3) 하나님 나라 세움에 일치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단체 후원 및 협력

3. 목회자 대물림에 대한 참회와 은혜를 계승하는 다음세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위한 참여:

- 1) 미래 세대(2세대 및 밀레니얼 세대)선교를 위한 연구 및 특수목회 지원
- 2) 디지털 세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디지털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재 제작 지원
- 3) 청년세대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새롭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살림을 이 땅에 펼치는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거듭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세우길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주안교회 창동염광교회

■ 세례간증



/ 주진경 성도(강촌공동체)

나의 하나님

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거기다 결혼을 했는데 시댁 분위기가 교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믿음생활을 포기하고 말았다. 어느 날 온누리교회 성도를 만났다. 아무런 말씀도 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이 참으로 따뜻했다. 온갖 힘든 문제들이 쉴 틈 없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체함을 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는데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다. 하나님이었다. 갑자기 눈물이 펄펄 쏟아지면서 회개가 시작됐다. 온갖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을 가족들이 생각났다.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몰랐던 내 안의 추악함이 드러났다. 소름 끼칠 정도였다. 타인에게 나만큼만 하면 세상에 평화만 존재할 것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나는 정말 추악한 인간이었다. 기도만 하고 나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힘들었던 상황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였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생활을 이어 나가면서 ‘시댁의 제사도 곧 없어지겠다’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런데 없애기로 했던 제사를 다시 하신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기도하

며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얼마나 강한 씨름을 했는지 떨썈했던 몸에서 열이 38도까지 올랐다. 씨름하다 환도빠가 어긋났던 야곱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댁 제사에 참석 시키셨다. 그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내가 가족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셨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 넘으시는 분이셨다. 성경에서 우리를 ‘주님의 종’이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그보다 기분 나쁜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추악한 나를 고쳐서 쓰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느껴진다.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걱정 없고 행복하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 넘으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힘이자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 두란노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추정훈 성도(푸른누리공동체)

아버지의 리더십

처음 두란노아버지학교를 권유받았을 때 ‘수료 후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에 망설이게 되었다. 또 ‘나만 변화되면 결국에는 예전 같은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다소 염세적인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153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스테프로 섬기고 있는 우리 순 부순장님의 강력한 권유와 결혼 초 장인어른의 권유를 떠올리며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참석했다.

지난 4주 동안 강의 듣고, 조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떠올려보면 ‘아버지의 리더십’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참석하면서 나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를 고민하게 됐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됐다.

나는 장교로 군 생활을 했다. 초임장교였던 내게 선배들은 “병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고, 병사들이 잠든 뒤에 잠들라”고 당부했다. 나는 선배들의 당부대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병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병사들이 잠든 뒤에 하루를 마무리 했다. 훈련이 끝난 직후에는 병사들의

냄새나는 양말을 손수 벗겨 발을 다치지는 않았는지 일일이 살펴봐기도 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강의를 들으면서 군대 생활했을 때의 내 모습을 떠올렸고, 가정에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됐다.

나는 내가 일어나기 전에 아내가 먼저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 놓기를 바랐다. 아직 잠들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도 내가 피곤하면 먼저 잠이 들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전우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초보 어머니에게 책임감만 강요했던 내 모습에는 리더십이 전혀 없었다.

나는 아내와 자녀가 나를 보며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참가하면서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고, 가정에서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가화만사성을 이루는 가장이 되도록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가정을 섬길 것이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양지 추계리의 늦가을

안태환 장로
(양지공동체)

설악산 단풍보다 아름답다는 양지 추계리의 단풍이 거의 다 떨어져 간다. Acts29 비전빌리지와 하용조 목사님 묘소를 안내하는 머리가 하얗게 샌 장로님들을 애 먹이던 비도 그쳤다. 비 온 끝에 떨어진 여러 색상의 단풍들도 하루하루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한다. 하 목사님 세수시켜 드리고 오셨다는 장로님들의 농담 속에 목사님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스며든다.

하 목사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무어라 말씀하실까? 교회의 여러 현안을 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답을 내리실까 궁금하다. 어려운 중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실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꾸중을 늘어놓으실지. 요한계시록의 일곱 개 교회 중에 어느 교회와 닮았다고 하실지 참 궁금하다. 지금 온누리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 가실지 하 목사님의 지혜로움이 궁금하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꿈에라도 잠깐 다녀가셔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시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자신감보다는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든다. 자주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나를 보며 기뻐하실까, 온누리교회를 생각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까 등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과 단둘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좋은 환경과 바쁜 교회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을까. 또 사역에 빠져 신앙은 제쳐두고 열심과 열정으로 몰아쳐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뒤쳐질세라 직분 값한다고, 모이는데 바쁘고 얼굴 들이밀고 악수하고 웃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싶다.

환호하는 군중의 소리를 외면하시고 이른 새벽 산에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떠올려 본다. 홀로 기도하시며 십자가사역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의 외로움과 처절함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낮고 좁은 길로 찾아 가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시고 살리시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나의 발걸음이 과연 함께 하고 있나.

장로님이라고 불리는 명예 속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의 반 타의 반 착각 속에 속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배우고 듣기보다는 가르치려 하고, 나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교회를 고치려 하고, 다른 이들을 치리하고 정죄하려는 유혹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다.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문을 눈물로 써 내려가는 우리 순의 새가족 성도님의 가난한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분명 그 마음과 눈물이 그 어느 것보다 값 비싼 보물인줄 안다. 그에 비하면 나의 마음 발은 기경을 기다리는 굳은 발이 아닌가 두렵다.

이제 교회 문을 들어서면 내가 할 것 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싶다. 목사님의 설교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수지맞는 농부가 되고 싶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니 이재하 하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다.

서송옥 권사
(고양은평공동체)

고양은평공동체가 일본 큐슈 무나가타에 있는 프레이즈란도교회로 지난 11월 3박4일 일정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프레이즈란도교회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형석, 서우숙 선교사 부부가 섬기고 있는 산 속의 작은 교회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관계’였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쉽지 않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일본은 극소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첫날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프레이즈란도교회가 산 속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카네자키마로 전도를 나섰다. 전도라고 하지만 우선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카네자키마일은 주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 곳이라 한 집 한 집을 직접 찾아 나섰다. 지짐이를 직접 부쳐서 한국에서 준비해 온 김치와 함께 전달해드렸다. 지짐이를 부치는 기름 냄새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처럼 마을에 퍼져서 노인들이 문을 여시기 시작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된 마을전도였는데 주민들로부터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었다. 어떤 할아버지는 “참 고맙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 어떤 어르신은 담례로 고무마와 감을 주시면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셨다.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에 너무 흥분해서 지짐이를 뒤집다가 튀된 하나가 손을 조금 데었다. 한 어르신이 연고를 찾아다가 발라주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 그것이 그분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한 번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상점으로 뛰어갔는데 파는 식용유는 떨어졌고 급히 자기 집에서 먹던 식용유를 덜어주셨다. 그 바람에 그분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건네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날 오후에는 오시마섬에 갔다. 그곳은 이형석 선교사 부부가 4년 전부터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관계를 맺어온 곳이었다. 기도가 쌓여있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이 선교사님의 단골 상점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만화가인 편무옥 장로가 그 가게 주인의 초상화를 그려드렸다. 그래서 기뻐하는 주인에게 목사님께서 기도할 기회를 얻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후의 일은 이형석 선교사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로 동역하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 온 일본인 청년과도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청년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박철웅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위해 기도도 해주셨다. 혼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는 일이 드물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과자와 차도 대접해주셔서 우리는 감격했다.

아웃리치 마지막 날은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해왔던 큐슈공업대학의 한국인 교수를 만났다. 교수실도 방문하고,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했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친교를 위해 애써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계속 기도한다.

우리의 전도여정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또한 이형석 선교사님 가정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고양은평공동체의 기도와 전도의 아웃리치는 이제 더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신앙에세이

백인규 목사
(Point5공동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언약적인 관계가 무엇일까?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문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신명기는 유언 같은 중요한 메시지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권면했다면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일까? 현대 사회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다. 없는 것이 아니

라 이 시대와 맞지 않다. 예전에는 한 회사에 뼈를 묻었다면 지금은 이직을 자주하는 시대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가 자기중심적으로 변했다는 증거다. 우리가 일어나서 잘 때까지 보는 광고가 2,000~3,000개 정도라고 한다. 대부분의 광고들은 우리의 심리에 맞춰져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비심리를 부추여서 스스로가 왕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약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신명기 29장 12~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모두가 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맺는 맹세에 참여해 네게 맹세하셨던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오늘 너를 세워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은 네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이 구절에는 사랑의 언어가 듬뿍 담겨 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은 사랑과 율법의 기묘한 조합이다. 언약이 감동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관계보다 더욱 친밀한 것이고, 법적인 율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발적인 상호관계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보다 중요하고, 이 관계가 나의 필요 보다 중요하며, 이 관계를 위해서 내가 희생 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언약의 달레마가 있다. 우리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만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에 눈을 감아 버리시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신실하실까? 그 해답은 창

세기 15장에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제사 사이로 들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신해 찢은 고기 사이로 들어가셨다(창 15:17). 이것은 우리가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다짐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 고 했기 때문입니다”(갈 3:13).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조건을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통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육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뒹뒹합니다”(고전 4:11~13).

누구나 세상의 보물이 되기를 원하지 쓰레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처럼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민족의 떠오르는 미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그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체함과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취급과 평가를 넘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고 세 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고후 11:23~28).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보다 사도 바울을 짓누르는 고

통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컸습니다.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여전히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엄청난 분노를 냈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악한 사람만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도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종교와 도덕에 갇혀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도덕적이고, 체계적이고, 의식적인 종교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 연결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12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종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도덕은 육체를 자랑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자랑 내용만 존재합니다. 육체를 자랑하느냐,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의욕을 북돋워 주고, 삶을 지탱해주는 신앙의 대상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교회 교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종교적 의식을 철저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신앙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 자체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 의식이나 체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신앙의 대상

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쓰면서 “내가 더 큰 글씨를 쓴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가 말하고 누군가 받아 적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의 친필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글씨로 쓴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17절).

사도 바울은 육체적 고통보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향과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믿고 있었고, 육체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고통을 넘나들며 받은 고통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고 남은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흔적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신 흔적을 부활하신 후에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었지만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의 흔적은 남기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도마처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모세 목사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세계 역사’



류모세 목사
(살롬이스라엘 담당,
《열린다 성경》시리즈
저자)

를 하게 된다. 제국의 바통을 네덜란드를 거쳐 영국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톨릭 봉건주의자인 필립은 스페인에서 성공한 것처럼 네덜란드에도 종교재판소를 도입해서 개신교 세력을 바퀴벌레 잡듯 박멸하고자 했다. 필립의 폭정은 80년 동안 이어진 네덜란드 독립전쟁(1568~1648년)의 촉매가 되었을 뿐이다. 그 이후 우리는 스페인이 이등국가로

떨어지고 17세기 후반 대영제국이 부상하기까지 17세기 전반기를 휩쓴 위대한 네덜란드의 세기(1602~1651년)를 목격하게 된다. 이 시기 스페인에서 갓 독립한 신생국 네덜란드는 전 세계 상선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강력한 해상무역국가로 부상한다. 이때 네덜란드는 신대륙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발견했고(뉴질랜드는 네덜란드의 젤란드 지방에서 온 단어), 미국의 동부 해안에 ‘뉴암스테르담’이라는 항구를 건설했다. 네덜란드에 유입된 유대인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해상제국 네덜란드의 급부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다. 1492년 유대인들은 스페인에서 강제 추방되었다. 유럽의 일등국가로 군림하던 스페인은 유대인 추방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걸었다. 반면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이 대규모로 유입된 오스만 터키제국은 술탄 술레이만 대제(1520~1566년)의 통치 아래 오늘날 미국에 버금가는 슈퍼 파워로 군림했다. 네덜란드 역시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

유대인과 해상제국 네덜란드의 탄생

인의 유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593년 종교개혁 혼란기에 유대인들은 네덜란드에 소규모로 정착했다. 개신교를 표방한 네덜란드는 당시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등 깨어있는 개신교도를 위한 최고의 망명지였다. 여기에 스페인 출신 유대인들이 합세했다. 당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개신교 국가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교황의 사주를 받은 스파이로 의심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모이던 대속죄일 예배를 급습하면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양자 간에 극적인 협상이 타결되었다. 유대인들은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에게 유대인의 거주를 허용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능력과 학식을 겸비한 유대인들을 부추겨 스페인과 싸우고 있는 네덜란드를 적극 돕겠다고 제안했다.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은 유대인들이 자국 내 신교도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안을 수

용했다. 이로써 포르투갈, 스페인을 비롯해 독일의 유대인들까지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암스테르담은 ‘신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유대인이 넘쳐났다.

네덜란드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무역망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국제적인 해상무역의 강자로 떠올랐다. 전 세계 항구에 상업사무소를 세우고, 무역로를 개척해서 세계 보석무역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유대인 화가 렘브란트 그림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낳은 세계적인 석학이 바로 철학자 바록 스피노자(1632~1677)이다.

《열린다 성경》스터디투어
-이스라엘 2020년 4월 30일~5월 7일
-이탈리아 2020년 9월 28일~10월 5일
문의: 010-4902-1022

14 온누리신문

2019년 12월 1일(주일) | 제1272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광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펄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안산M센터 다국적 중고등부 교사모집
예배: 안산M센터 오전 11시(안산 원곡동)
장소: 온누리 안산M센터 305호
문의: 김연경 선교사(010-3299-1712)

일본어예배 차세대 사역 차량 모집
모집: 7인용 자동차
문의: 최민희(010-4764-8382)

다샘물학교 교직원 모집
분야: 음악, 영어, 사회(또는 역사) 교사 및 회계업무 직원
접수: 12월 16일까지
문의: <http://www.tsmca.or.kr>

서빙고 분실물 처리 안내
성도님들이 분실하신 귀한 물품들을 보관 관리팀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영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Crow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팡: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12월 9일까지 통일아카데미로 대체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분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몽골 의료병원 의학서적 기증 요청
지역: 몽골 초이발산 광역의료병원 의학도서관
모집: 출간 10년 내 영문의학서적(원서)
기증: 12월 10일까지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김의석 팀장(010-3326-8058)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팡(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팡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수요일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예꿈실
꿈이지라는땅 오전 9:00, 11:30 꿈팡실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실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032.437.9686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12/1, 8, 15, 22, 25, 29: 칸벤시아(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 예배/국제예배/사랑부 예배 제너েশ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제너েশ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শ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어/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팡1부 9:00, 파워웨이브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해본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배 오후 2시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지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지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30 / 2층 드림씨드홀(분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킨댄서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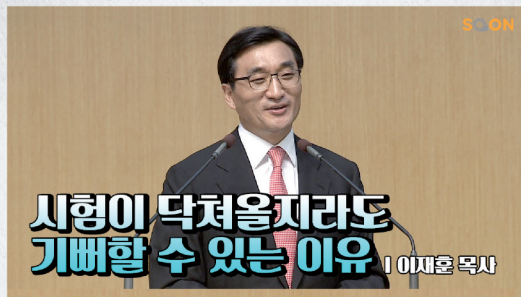
CGNTV

하루 3분, 은혜로운 습관
세상에서 가장 **순한 3분** 영상

SOON

매주 월, 수, 목, 토 오후 6시 새로운 영상 업로드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3분 메시지

설교, 간증 등 메시지를 3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하우스쿨

바쁜 현대인이 성경 지식과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강연의 핵심을 담았습니다.



CGN 컬처클립 : 삶의 고백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삶의 위로를 전합니다.



CGN 컬처클립 : 찬양

CGNTV를 통해 방영된 음악 프로그램을 짧게 편집해 더 널리 은혜를 나눕니다.